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앙의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픔과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빌립보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교회 지도자의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었고,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지만(3절)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갈등의 문제를 넘어 기쁨의 공동체로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은 ‘주 안에’입니다.(1절, 2절, 4절) 주님 안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안에서 어떤 공동체로 서야 하는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 첫째, 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3절)

교회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조용히 구경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동역자들이고, 함께 구원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3절)

주 안에 서도록,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서로 도와 한마음 되길 소원합니다.

### 둘째, 관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5절)

- 관용이라고 번역된 말은 ‘받아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주고, 너그러게 용서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5절은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관용으로 한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 셋째,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6절)

공동체 안에서 사람 간의 갈등은 사람의 힘으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갈등을 풀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12~14)

우리 한우리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한마음 되길 소원합니다.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립보서 4:4-5)

## 통독

### 이번 주 성경 통독

3/22(월)	3/23(화)	3/24(수)	3/25(목)	3/26(금)	3/27(토)	3/28(주일)
신 31-32장	신 33-수 1장	수 2-4장	수 5-7장	수 8-10장	수 11-13장	수 14-15장

## QT

### 이번 주 QT 말씀

3/22(월)	3/23(화)	3/24(수)	3/25(목)	3/26(금)	3/27(토)	3/28(주일)
마 25:14-30	마 25:31-46	마 26:1-16	마 26:17-35	마 26:36-46	마 26:47-56	마 26:57-68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나요? 주 밖에 있나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의 갈등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4. 하나됨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들(도움, 관용, 기도) 중 내가 특별히 더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